

보도 시점 2026. 4. 22.(수) 12:00
(2026. 4. 23.(목) 조간) 배포 2026. 4. 22.(수) 09:00

과학 기술 연구자와 문화·예술의 만남, ‘26년 과학문화 신규 프로그램 추진

‘26년 신규 과학문화 프로그램 ‘연구자-문화 연결’ 참여 공모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우성)은 전 국민의 일상 속 과학 체험 확산을 위해 국민이 문화·예술을 즐기면서도 유익한 과학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연구자-문화 연결’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구자-문화 연결’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①연구자 큐레이션(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예술 시설 대상), ②과학 라운지(동호회 대상)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자 큐레이션은 문화·예술 전시품에 연구자의 전문 지식을 접목하는 프로그램이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이 연구자로부터 각각 전시 유물에 담긴 소재·화학적 변화 등 과학적 원리, 미술작품의 색채·빛 등에 대한 과학적 재해석, 과학 도서와 연계한 전문 지식 등 어디에서도 접하기 힘든 재미있는 설명을 들어볼 수 있다.

② 과학 라운지는 연구자의 전문 지식을 취미 활동과 접목한 생활밀착형 과학문화 활동이다. 등반(클라이밍), 야구, 공예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과학적 시각에서 접근한다. 운동 전 몸풀기 과정에서 근육 구조를 고려한 효과적인 뻘기운동(스트레칭) 방법을 알아보는 등 연구자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생활 속 궁금증을 해결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시설과 과학 기술 연구자는 4월 22일(수)부터 5월 15일(금)까지 약 3주간의 공고 기간 내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세부 내용과 제출 양식은 과기정통부 누리집(msit.go.kr) 또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누리집(www.kosac.re.kr) 내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구자-문화 연결」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문화·예술 시설의 전시를 과학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기존 문화시설에 과학적 해석이 더해져 새로운 과학·문화 융합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참여시설과 연구자 모집이 완료되면 6월부터 시민 참여를 신청받아 지역별 문화·예술 시설과 동호회에서 순차적으로 연구자 큐레이션과 과학 라운지가 운영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제준 과학 기술 문화 과장은 “이번 신규 과제를 통해 국민이 일상적인 문화 활동 속에서 과학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연구자는 더욱 친근한 방식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과학을 더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미래인재정책국 과학 기술 문화과	책임자	과장	이제준 (044-202-4840)
		담당자	사무관	신호순 (044-202-4845)
관련 기관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기획실	책임자	실장	이현숙 (02-559-3860)
		담당자	연구원	천세원 (02-559-3811)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